

나그네 영성을 갖고 삽시다!(히11:13-16)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나면 고향도 바뀐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시다. 나의 가족은 함께 구원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다. 나의 고향은 이제 이 땅의 집이 아니라, 하늘의 집이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고향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는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나게 된다. 이제는 하늘의 고향을 사모하면서,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간다. 이것을 "나그네 영성"이라고 말한다. '나그네 영성'을 갖고 사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자신을 '나그네'라고 소개합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이란 믿음의 선배들을 말한다.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그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나는 당신들 중에 우거하는 나그네입니다"라고 말했다(창23:4). 야곱은 나이를 묻는 애굽의 바로왕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창47:9)라고 말했다. 나그네라는 고백은 그들이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음을 보여준다. 베드로 사도는 신약의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라."(벧전2:11)고 말했다. 거류민은 남의 나라에 임시로 거주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그네, 거류민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2.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본향을 찾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나그네 영성을 가진 사람은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 살아가는 모습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에 두지 않는다. 세상에 안주하거나 정착하지 않고, 항상 떠날 준비를 한다. 이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고 사라질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은 진정한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장막을 치고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았던 것이다. 우리도 나그네로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3.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15-16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나그네 영성의 마지막 시금석은 결코 천국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의 고향을 자신들의 본향이라고 생각했다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돌아갔을 것이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 고난도 많고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고향을 찾지 않고, 자신들의 참된 본향인 하늘나라를 향해 끝까지 순례의 여정을 걸어갔다. 이렇게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축복을 말씀하신다. (1)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불완전한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나타내셨다. (2)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 '성'은 '장막'과 대조되는 표현이다. 나그네 삶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천국본향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성이 예비 되어있다.

나그네 영성을 갖고 삽시다!(히11:13-16)

1. 마음 열기 - 나의 어린 시절 살았던 고향은 어떤 곳이었나요?
2. 경배와 찬양 - 찬491장, 순례자의 노래

저 멀리보는 나의 시온성 오 개룩한곳 아버지 집 -
아득한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
내 사모하는 집 에 가 고 자 한 밤을 세웠 네 -
내 고생하는 모든 일 들을 주 께서 아 시 리 -
저 망망한 바 다 위 에 이 몸이 상할지라 도 -
빈 들이나 사 막 에 서 이 몸이 곤할지라 도 -
오 늘은 이곳 내일은 저 - 곳 주 복 음 전 하 리 -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 하 - 사 날 지 께 주 시 리 -

3. 말씀 나누기 - 먼저 성경본문과 말씀요약을 읽으세요.

- (1) 성경본문과 주일설교를 통해, 특별하게 다가온 말씀이나 은혜 받은 교훈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 (2)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이러한 '나그네 영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나그네임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나그네 삶을 나누어 봅시다.
- (3) '나그네 영성'을 가진 사람은 말 뿐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포기 하지 않고 나그네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4. 사역나누기

- (1) 성령 충만한 목장과 돌봄이 필요한 목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 (2) 우리 목장이 품은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 (3) "공동체 성경읽기"와 "2022년 새생명축제"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